



김응철 이순교 이호근 박건주 이희재 지현 스님 이종표

호남 최초 재가논강 열린다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8월 11일~9월 22일 매주 금 광주 원각사서

호남에서는 처음으로 재가불자들이 도심사찰에 모여 신행을 점검하는 논강이 열린다.

광주 원각사(주지 도제)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22일까지 매주 금요일 대웅전에서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펼친다.

보시,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지계 등 육바라밀을 소주제로 정해 진행되는 이번 논강은 광주·전남 지역의 불자와 신행단체장들이 직접 논주와 토론자로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논주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순교 의림사, 이호근 법사, 박건주 전남대 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 송광사 율원장

지현 스님이 나서고, 지역 포교사단, 청년회, 직장 직능 불자회 실무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재가불자들을 위해 논강 자리를 마련한 도제 스님은 "스님들을 통해 일반적으로 듣기만 하던 법문에서 벗어나 평소 궁금했던 점을 묻고 풀어가는 법회가 요구된다"며 "재가논강은 길을 찾아 헤매는 이들에게 참 불자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논강의 총괄 진행을 맡은 이종표 전남대 교수는 "지역 사찰에서 재가논강을 마련한 것은 포교의 현대화라는 의미에서 괄목할만한 일이다"며 "불교가 관념적이 지 않고 현실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도록 논강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논강 두번째인 '인욕'의 논주를 맡은 이순교(정신의학) 박사도 "육바라밀의 하나인 인욕이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화(煩惱)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고, 삶 속에서 불교적 실천으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가논강은 음력 7월 윤달을 맞아 원각사가 마련한 생전예수재 법회의 하나로 8월 5일부터 49일동안 논강과 함께 실천수행으로 신행결사에 들어간다.

원각사는 신행결사 기간 동안 참회(매일 500배 하기), 지계(오계 지키기), 선정, 보시(이웃돕기 보시금 모으기), 송경(경전 49독하기), 사경, 만행(삼사순례)을 펼친다.

이번 신행결사는 9월 22일에는 광주천변에서 유등축제를 끝으로 회향한다. 원각사 (062)223-3168

이종엽 기자

'차훈명상 견차' 지도사과정 7월 26일~8월 16일 총 4회

차훈명상 총본원(원장 선혜)은 지도자양성을 위한 견차(見車) 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7월 26일부터 8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차훈명상의 전반적인 개론과 득기, 수련으로 진행된다. 또한 특별강좌로 차훈단식 집중수련과 미인차훈법, 통기차훈법 수련이 펼쳐진다.

차훈명상은 전통 우리 차의 훈기와 명상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고 몸의 활력을 찾는 수행법이다. (062)375-2773 이종엽 기자



구례 화엄사가 지역주민과 불자들을 위해 7월 13일 개설한 불교기초교양대학 입제시 모습.

구례 화엄사 불교교양대학 문열어

50여명 입학... 9월 10일까지

구례 화엄사(주지 종삼)가 7월 13일 지역주민과 불자들을 위해 '불교기초교양대학'을 개설했다. 오는 9월 10일(매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제1기 강좌에는 구례지역 관공서 직원, 문화해설사, 주민, 신도 등 50여명이 입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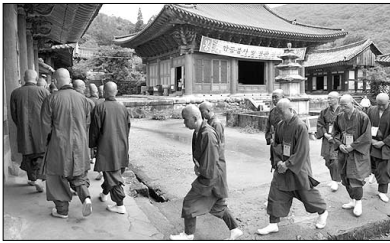
첫 강의에 앞서 주지 종삼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불자뿐 아니라 지역 농민, 주민이 함께 공부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불법을 배우는 화엄사 지역민이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열린 강의에서 화엄사 승가대 학과장 연광 스님은 "불교는 인연의 종교이며 인연은 더불어 사는 것이다"며 "불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천으로 일상생활이 활기차고 보람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엄사 교양대학은 매주 목요일(오후 7시) 화엄사 내 범음료에서 부처님상에, 불교기초교리, 신행생활, 수행 등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교리와 수행 등의 강좌를 펼친다.

한편 화엄사는 7월 25일 각황전에 아미타 부처님을 조성하고 점안식과 보살계 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61)782-7600

글·사진=이종엽 기자



태고종 합동독도 행사교육 순천 선암사에 개설... 31명 참가

태고종 총무원(원장 운산)은 제30기 합동독도 수계를 위한 행사교육원을 태고총림 선암사에 개설하고 1차 교육에 들어갔다(사진, 7월 18일부터 31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는 올해 첫 행사교육에는 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학인 31명이 참가했다).

첫날 입재식에서 선암사 부주지 승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행사시절 익힌 습의는 올곧게 정진하는 출가 수행자의 근본이 된다"며 "몸을 조복받아 마음을 다스리는 데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10월경 열리는 제30기 합동독도 수계는 일반인이 사미(나)계를 받는 마지막 수계식이며, '선교육 후독도' 제도가 실시되는 내년부터 동방불교대학 교육과정을 마쳐야 출가할 수 있다. 이종엽 기자

'증심사입구역' 역명 변경 '학동·증심사입구역'으로

특정종교인들의 역명 변경 요청(분지 586호 7면 기사참조)으로 광주 지하철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 역명이 '학동·증심사입구역'으로 변경된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7월 19일 "광주불교사찰연합회와 광주지하철역명변경공동대책위원회, 학동주민자치위원회가 현재의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 명칭을 '학동·증심사입구역'으로 변경하고 더 이상 재론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증심사입구역'은 2003년 광주 지하철 개통당시 '증심사입구역'으로 출발했으나, 일부 주민과 특정종교인들의 반발로 '증심사입구(학동삼거리)역'으로 변경된 바 있다. 그 후에도 특정종교인들은 지속적인 민원을 통해 '증심사입구역' 삭제를 요청해왔다.

이와 관련해 광주불교사찰연 회장 해양 스님은 "증심사입구역 명칭은 시민들의 여론조사와 1200년 전에 창건된 증심사의 역사, 상징성을 고려해 지정되었다"며 "시민들의 결정에 종교인들도 겸허하게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역명변경로 합의한 역명은 9월경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엽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호남지사 : (062)375-9986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충남동부지국 : (010)3069-3170

지역불교 일구는 우바세

정의행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 공동대표



광주불교문화대학(학장 행법)이 여름에도 특강을 펼친다. 불교문화대학 정의행(48) 교수가 7월 20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오전 10시) <선생경(養生經)>을 강독한다.

어느 때와 다르게 정 교수가 이번 특강에 임하는 마음은 남다르다. <선생경>은 오래전부터 지역의 불자들이 함께 보고자 별려왔기 때문이다.

"<선생경>은 부처님이 재가불자에게 일러주신 생활윤리이자 실천 지침서입니다. 경을 읽다보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게하는 거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내에서 한문 논술학원을 운영하는 그는 불교대학 교수이자 평화실천 광주전남불교연대(이하 불교연대) 공동대표이기도 하지만 주로 법사로 불

통일축전에서 정서정 조선불교도연맹 서기장을 만난 정 법사는 8월경 공우유 제조기를 복讞 유치원에 지원키로 약속했다. 이밖에도 정 법사는 불교연대가 펼치는 △평화통일 △생명인권 △자연보호 △참여불교를 위해 등분서하고 있다.

학창시절 정 법사는 경전 보기를 좋아했다. 혼자서 보는 경전만으로는 갈증이 채워지지 않았다. 아예 사찰로 들어갔다. 몇 년간 학습을 찾아 경전을 섭렵했다. 경전을 보면서 다가오는 것은 '일 있으면 실천하자'는 것이었다. 나아가 '생활 속에서 포교하자'는 발원으로 이어졌다.

광주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았다. 당시 친구들이 쓰러져가는 것을 보고 분노하니 나

'통일·민주화' 화두로 대사회운동 헌신 교육가이자 실천가... 꾸준히 불서 집필

린다. 20년 전부터 대법원을 지도했고, 재직사찰인 문빈정사에서 법사로 활동하고 있다.

활발한 전법활동 가운데 정 법사가 헌신을 다하는 것은 불교의 대사회운동이다. 특히 '통일과 민주화'는 정 법사가 평생을 두고 치열하게 파고드는 화두이다.

"부처님은 전도선언을 통해 '많은 이의 이익과 인락을 위해 길을 떠나 법을 설하라'고 하셨습니다. 불교 수행과 실천은 별개가 아닙니다. 만인이 마음 편하고 통일된 나라가 불국토입니다."

정 법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불교연대는 4년 전부터 '복讞어린이와 나누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마다 무등산 등산로 입구(문빈정사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복讞어린이 돕기 모금행사'가 그것이다. 정 법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주 모금행사에 참여한다. 이렇게 모은 성금으로 그동안 복讞의 어린이들에게 6차례 걸쳐 복讞 12톤과 용천역 참사 때 어린이 생필품을 지원했다.

지난달 광주에서 열린 6·15민족

했다. 호반단에 참여했고, 이후 오랜 시간 도피와 수감생활을 겪어야 했다.

정 법사는 서울에서의 편한 직장도 권유받았지만 광주를 떠나지 않았다.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며 경전을 이야기 했다. 이렇게 정 법사는 줄곧 불교의 대사회운동과 불교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정 법사는 몇 권의 책을 냈다. 1996년 발간한 '시 꾸러미'는 아직도 청소년 추천도서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1991년 발간한 '한국불교통사'는 민중들의 불교를 밝은 세상에 드러내 놓은 역사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 법사는 한국불교통사 머리말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지난날의 왕사 국사 선사 위주의 불교사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 제아무리 고승이라 할지라도 민중을 억압한 지배자의 편에 서서 복을 빌어주고 사상을 펼쳤다면 우리 민중에게 '고승'일 수 없다."

힘들고, 외롭고, 굶은 자라지만 불교가 함께해야 할 곳이라면 항상 그곳에 우뚝 서있는 정 법사의 소신이다. 이종엽 기자

광주 불교 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서로 모여 부처님의법을 듣고 토론합니다' 원각사 재가논강(在家論講)

원각사에서 예수제기간동안, 재가불자들이 평소 신행생활을 함에 있어 접하고 행하는 신행 방법에 대해 '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대주제를 놓고 1주일에 한번씩 총 6회에 걸쳐 각각 소주제를(육바라밀) 정하고 그에 따른 논주(論主)와 토론자들이 참여하는 재가논강을 봉행합니다.

- 주 제 : 재가불자 신행생활 어떻게 할 것인가?
- 일 시 : 불기2550년(2006년) 8월 11일 ~ 9월 15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 9시)
- 대 상 :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 논주(論主) :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이순교 의림사, 이호근 법사, 박건주 전남대교수, 이희재 광주대 교수, 송광사 율원장 지현스님
- 장 소 : 원각사 대웅전
- 주 최 · 주 관 : 대한불교조계종 원각사
- 후 원 : (주)BBS광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 ※ 발제 40분 / 토론 50분 / 토론자 2인(신행단체) / 총 진행 : 이종표 전남대 교수
- 보살 수계식 동참비: 2만원, 송광사 율원장스님께서 수계하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수행 결사반을 모집합니다

생전예수제를 지내는 49일 동안 수행과 신행, 참회와 공덕행을 쌓는 결사(結社)모임을 만들고 신행을 혁신하기 위해 정규를 제정, 지도하도록 함.

기간 : 생전예수제 기간(49일)
내용 : 매일 사시기도후, 저녁 공양후 각각500배씩(지도법사:주지스님) 사경, 독경은 매주 재가 끝난 후 원각루 2층 (지도법사:설몽스님)

- 생전예수제 안내

불기2550년 음력 7월 윤달을 맞아 원각사에서 살아생전 진 빛, 즉 업을 죽기 전에 잘 닦아서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죽음을 대비하고자 하는 수행의식인 생전예수제를 봉행합니다.

- 49재 | 입재 : 2006년 8월 05일 토요일 오전10시 | 회향 : 2006년 9월 22일 금요일 오전10시
- ※ 매주 금요일 마다 재를 7.7재 일곱번 지내고, 동참비는 1인 10만원, 가족 30만원입니다.
- 영산재 초재, 막재에 영산재를 봉행합니다.
- 9월 4일 월요일 윤달 삼사순례가 있습니다.
- 장 소 : 무주 안국사 외 2곳
출 발 : 원각사 앞에서 8시
동참비 : 3만원
접수 및 문의 : 원각사 종무소 062)223-3168